

2012년 2월 정년기념식 정년교수 대표 고별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박한제(朴漢濟)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박한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천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대 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희들 정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초한 제가 퇴직 교수를 대표하여 이런 자리에 서서 고별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황송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저의 소회를 말씀 드리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오늘 저희들 퇴직교수들의 마음은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나름으로 감개무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부터 ‘서울대학’이라는 이름을 들은 이후 이 단어를 빼고서는 제 인생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0년대에 학생으로 입학하여, 조교로, 그리고 교수로 40여년의 세월을 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했으니, 서울대학교는 제 인생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한 사랑과 온갖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이 서울대학교의 멤버에서 내일이면 제외됩니다. 아내와 두 딸의 편잔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마다 “서울대학의 박한제입니다”라 하던 제가 내일부터는 뭐라 해야 하는지 그저 멍멍할 뿐입니다.

“회망여몽(回望如夢)”이라더니 뒤돌아보니 꿈같은 세월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 때문에 깊이 좌절하기도 하고, 또 희열하기도 하였지만, 돌아보니 서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업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준 자랑스러운 모교 서울대학교, 연구의욕을 적당하게 유발시킨 동료교수들, 그리고 군자삼락(君子三樂)을 만끽하게 해준 사랑스런 제자들.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에 관계한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위상이 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곤경에 처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책임만은 서울대 구성원, 특히 교수들에게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처럼 인재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주는 나라는 아마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학이 관악에다 새터를 잡을 때 동문시인은 “그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라고 읊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인의 바람에 맞게 가르치고 또 연구하였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라는 평가에 너무 우쭐하고 안주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창신(創新)의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이전에 간 길을 그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방향이 과도하게 성과주의로만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그리고 실정에 맞는 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은 학문의 연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이 지향해야 할 길은 대학의 근본이념을 되찾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창학이념을 되새겨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생이 된 것은 인생에 있어 영광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는 평탄한 길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파르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손과 도전, 집중이라는 세 단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유학의 최고 가치이자 그 핵심덕목인 인(仁)을 공자는 공(恭)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공은 자기에 대한 절제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공손한 자를 이긴 경우를 어느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끈질지게 도전하십시오. 인생은 단 한번의 시간여행입니다. 자기 길은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에 네 번 낙방하고 다섯 번만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산만한 천재가 성공한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 하나에 무섭게 집중하십시오.

끝으로 저와 함께 정년을 맞은 29명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노년사고(老年四苦)”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타인,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지탄 받고, 또 스스로도 가장 고통 받는 것이 바로 할 일 없어 이리 저리 떠도는 무위고(無爲苦)가 아닐까 합니다. 이 무위고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간된 어느 노교수의 전기(傳記)가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96세의 나이로 4년 전에 작고한 북경대학 역사학과 노교수(王永興: 1914-2008)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질풍노도

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인민중국의 성립,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이라는 30년에 걸친 미증유의 성난 파도를 타고 넘은 후, 1978년 문화대혁명이 종료되어서야 강단으로 돌아오니 그분의 나이는 이미 우리들과 비슷한 65세의 노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독백에 의하면 “몸도 병들고, 지력은 쇠약해지고……. 어느 것 하나 고장 나지 않는 것이 없는” 처량한 몰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당(唐)나라시대 병제사(兵制史)에 관한 주옥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간 그가 펴낸 단독 저서가 무려 10권이 넘습니다. 저는 정년을 맞아 학교 연구실의 책들을 개인연구실로 옮기면서 상당수 책들을 폐기하였지만 그분이 노년에 쓴 책들만은 정중하게 모셔옵니다.

교수에게는 정년이 있지만 학자에게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일, 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때까지 해 온 일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 못해 쓰는 글이 아닌, 쓰고 싶어 쓰는 글, 그래서 쓰면서 신이 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젊은이처럼 치열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자가 되려합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학자답게 살아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대학이 세계 베풀어 준 큰 은혜에 대한 저의 작은 보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모교 서울대학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2012. 2. 29)